

옆에서 본 저자 류형선  
김활성

혼란한 시대 무명의 가난뱅이 음악가를 기억하며,  
그의 노래 옆에 있던 나를 기억하며,

올 해, 그러니까 2004년 초,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그러그러한 말투와 표정과 제스처를 가지고 있었다. 난 유명한 사람의 면전에 처럼 어색해했지만 그는 부드러웠으며 내게 존댓말을 건네줬다. 이후 몇 번의 공적인 만남과 한 차례 정도의 사적인 자리가 있었다. 그는 존대와 하대를 간간히 섞기 시작했으며 헤어지는 인사는 조심스럽게 동생 대하듯 해줬다.

하루 일을 마치고 들어가기 전 집에 전화를 넣었더니 아내 왈 류형선 씨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길래 곧바로 답전화를 드렸다. 내게 글 하나 부탁하자시며, 자네가 날 편견없이(이렇게는 말씀치 않았지만 대강 그런 뜻으로) 바라봐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는 거라 했다. 부탁은 역시 부드러웠다. 나는 잠깐의 사이를 두고 감사히 “네”라고 답했다. 다음 날인가 〈출판저널〉로부터 전화가 왔고 곧 ‘옆에서 본 류형선 선생’이라는 주제로 ‘선생님의 옥고를 신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청탁서가 이메일에 첨부돼 왔다. 뭔가 나는 기분이 이상하였다. 옆에서 본 적 없는 그를 기억해 내야 하는 일도 이상하거니와 그 일을 당사자인 그로부터 부탁받은 일도 새삼 이상했다. 류형선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일은 애초에 내가 잘 못할 일 중의 하나다. 나는 그의 편이니까. 그와 같은 편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으니까. 그저 내 편견의 마음이 말로 잘 풀어지기를.

십 년도 더 지난 일이다. 남들도 그러했겠듯 그가 만든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세상에! 이런 노래들이 있었다니...” 친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노래를 처음 들으며 난 무언가를 결심하고 노래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잘 외워지지 않았다. 노래가 내게 너무 멀리 있었던 까닭이다. 내겐 ‘불끈 쥘 두 주먹’과 ‘서러운 육신’의 포즈만 있었을 뿐 신체적 기억이 없었던 것이다. 그 분명한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걸 그냥 외우지 않으면 안 될 지경으로, 나는 알 수 없는 자의식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나는 류형선의 노래들을 무조건 외워버리려고 했다. 그래야만 됐었다. 조건은 없었지만 이유는 있었다.



세월은 흐르고 세상이 비교적 조용해졌다고 하는 시절, 나는 그가 이런저런 일자리에서 그 사람좋음과 더불어 날카로운 예술가적 감수성을 적절히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엿들었다. 그러다, 얼마나 됐을까. 몇 년 전 그는 학교에 들어간 후 전통음악을 새로 배우고 있단다. 겸손과 자신감을 겸비한 그답다고 생각했다.

그는 음악가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라는 자기신분을 오래 전에 공적으로 밝혔을 테고 나는 그의 고백을 존중한다. 한 사람의 참된 종교인이 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큰 부담과 책무감에 시달려야 하는 일인지를 그는 몸으로 느껴왔을 것이다. 폭력과 암흑의 시대를 평화와 희망의 시대라고 선전하는, 불의와 고통의 시대를 평등과 행복의 시대라고 우기는, 죽음과 분단의 시대를 상생과 화합의 시대라고 거짓말치는 이 땅에서, 기독교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도 모자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좇는 일을 하는 사람



### 이 글을 쓴 김활성은

서양음악이론을 공부했고  
 현재는 글을 쓰거나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민족음악연구회 음악학교장,  
 음악모임 〈피아노마당〉〈한중의 소리〉  
 등의 음악감독으로 활동중이며  
 천안대, 숭실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아닌가. 그게 바로 그가 간증하다시피 말한 자신의 음악적 신념인 '버린 돌' 사상 아니겠는가. 버려진 돌.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 피말리는 경쟁체제로 돌입한 버려진 돌들이 아니고, 권력의 야심을 키워가는 어린 목동들도 아니며, 안 믿는 사람들의 본과 덕이 돼야 한다며 부와 명예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추구하는 저 '믿는 사람들' 도 아니다. '버린 돌' 을 향한 류형선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사람의 그것처럼 그렇게 절실하다. 그가 왜 그런 길을 택했을까. 기독교인의 앞에 일

체의 고난의 길만 펼쳐져 있다면 그럴 수 없다. 류형선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을 것이다. 비밀이므로 나는 그걸 모른다. 그가 고백한 자기신분과 자기의 음악적 신념과 그가 보여주는 말투와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 그리고 그의 음악과 삶을 통해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옆에서 못 본 탓도 있지만 '류형선 선생' 에 대한 내 기억은 아마 이 정도고 앞으로 그 정도일 것이다. 난 오히려 그의 노래 옆에 있었던 나를 기억하며 이 글을 썼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그를 잘 모른다고 하는 내 젊은 생의 무딘 굴곡의 한켠에 그가 남긴 노랫자국이 참 선명도 하다.

"김활성... 서로에게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좋다!" 그가 요사이 읽어보라고 준 책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의 표지를 넘기니 몇 마디 적혀 있네. 형, 나도 좋습니다. 진심이에요.

추신: 예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만 동시에 세계적으로 외로워졌다. 예수의 유명세는 우리의 호들갑 덕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끝내 지켜낸 것은 침묵이었고 고독이었고 포기였고 절망이었지 않았는가. 예수마저도 슈퍼스타시스템을 통해 나날이 확대재생산 판매하는 이 세상에 류형선 하나를 유명하게 만들어 파는 것쯤이야 껌이겠다. 그러나 류형선은 혼란한 시대 무명의 가난뱅이 음악가로서 자신의 꽃을 묵묵히 피워내며 이웃과 세상을 향해 참된 분노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때의 그 자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작은 불씨 같았던 그의 노래들을 내 추운 가슴에 남몰래 지피며 따스한 소망 하나 키워가던 내 어린 날들을 역시 안 잊으려고 한다. 그래야 내 가난한 노래 속에 참다운 분노와 사랑 한 줌이라도 담길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그와 한 편이 되는 일도 있을 거니까. ☞